

투데이 칼럼

유사성 법칙의 스피치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나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심야에 택시를 잡으려다 놓친 두 사람이 서로 가까운 관계가 되어 동업자로 성공한 경우도 있고 훈련받은 군대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서로 말이 통하게 된다.

또한, 같은 운동, 음식 등도 좋아하면 쉽게 가까워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이것은 유사성의 법칙 때문이며 서로에게서 유사성을 찾게 되면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다.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들 경우, 같은 메뉴를 시킬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것이다. 결국은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라는 말이 마음에 든다는 표현인 셈이다.



김 양 옥

한국스피치·음변협회 전북회장

첫째, 복장의 공통점을 찾아본다. 무엇을 부탁을 할 때 자신과 비슷한 복장을 한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준다는 조사도 있었고 신혼부부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도 유사성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둘째, 말투를 비슷하게 해 본다. 상대를 관찰해보면 독특한 습관을 엿볼 수 있는데 상대가 자주 쓰는 말을 같이 써주면 쉽게 친해진다.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사투리, 말투 등이다.

셋째, 복장의 공통점을 찾아본다. 무엇을 부탁을 할 때 자신과 비슷한 복장을 한 사람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준다는 조사도 있었고 신혼부부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도 유사성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넷째, 사적대화(스몰토크)를 잘 해 본다. 상대방의 몸짓을 자연스럽게 따라 해 보면 가까워 질 수 있다. 넷째, 사적대화(스몰토크)를 잘 해 본다.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에서는 상대와 상황, 업무에 따라 공감하는 말거리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상대에 관련된 말에 공감하고 마음이 열리며 친하게 된다. 사적 대화는 상대, 상황, 장소, 시간 등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하고 이 시작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여섯째, 함께 고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함께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어 고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가까워진다.

함께 나누는 고통이라는 공통점이 끈끈한 관계로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부부도 함께 고생하며 노력하여 잘 살게 된 부부들은 끝까지 금슬이 좋고 함께 보냈던 고통스런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대와 말을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고 상대가 원하는 공감의 말을 하면 어색했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바뀌면서 소통이 잘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만 깜박거리고 소통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는데 답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호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것은 소통이 먼저이다. 현대는 소통의 시대이므로 유사성의 법칙으로 관계구축 잘하여 가정, 직장, 사회생활에서 소통하는 성공의 삶, 행복의 삶으로 즐겁게 살아보자.

사설

청년 창업 특구 구성에 더욱 힘내야

전북도는 청년창업특구 구성에 힘내야겠다. 지금은 관심이 온통 코로나 퇴치와 총산에 쏠려 있지만 정부는 예전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고 우선 순위로 꼽아왔었다. 두루 알고 있는대로 우리 지역은 젊은이들의 탈전북 현상이 심각했다. 그 답답한 현실의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여기 거듭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겠다. '전북 농생명산업 청년창업특구'를 국정과제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 발전연구원으로부터 나왔는데 다시 시도해 볼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 말하고 있거니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들은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자리를 꾸준히 내놓고 있다지만 젊은 미취업자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들은 미취업자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러는 것인지 헤아려야 한다. 전북도는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들은 미취업자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눈

높이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것을 말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이제 일자리의 만족도를 생각해야 한다. 시간제나 기간제 같은 일자리 들로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그같은 일자리는 살림살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도내 젊은이들의 결혼 비율이 낮고 또 그런 까닭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짚어 볼 게 있다. 약속한 만큼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였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였던지 미취업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였던지 미취업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가 아닌데도 성과가 좋다면 부풀리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보도가 정직했다면 오늘날 어째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겠는가. 전북도가 내놓은 일자리는 보수가 적은 게 하나 틀이 아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 지자체는 명심해야 한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신뢰성이 중요하다.

농촌 살리기 행보 힘차게 보여야

전북도는 도내 농촌의 현실을 면밀히 보아야겠다. 삼락농정을 펼쳐온지 그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그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

농가 소득의 양극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소득증대의 궤준화가 있다. 농정 당국은 그동안 농가를 위하여 이런저런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므로 농가들 간에 존재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격차를 좁혀 가면서 삼락농정의 이상을 실현시켜야 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

전북도는 추진의 모양새를 바로 잡아야 한다. 농촌의 환경이 변해야 하고 농업의 성격이 변해야 하는데 아직도 예전의 환경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제 농촌 부흥을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 전북도가 농생명 산업의 속도감 있는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전북도가 농가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닐테지만 여전히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농가를 위해서 삼락농정 비전을 여러 번 보여줬다. 주요한 도정 현안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말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농생명 산업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려는 주면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충분하다. 도내 농민 대다수는 우리 전북지역이 농도가 맞나며 물어보고 있고 농정 당국은 그동안 농가를 위하여 이런저런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므로 농가들 간에 존재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격차를 좁혀 가면서 삼락농정의 이상을 실현시켜야 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

정 비전을 여러 번 보여줬다. 주요한 도정 현안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말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추진의 모양새를 바로 잡아야 한다. 농촌의 환경이 변해야 하고 농업의 성격이 변해야 하는데 아직도 예전의 환경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제 농촌 부흥을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 전북도가 농생명 산업의 속도감 있는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전북도가 농가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닐테지만 여전히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농가를 위해서 삼락농정 비전을 여러 번 보여줬다. 주요한 도정 현안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말하기도 했다.

독자제언

졸음 앞에 장사없다, 봄철 졸음운전 조심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정신없는 요즘 같은 때에도 매년 봄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따스한 봄 날씨로 몸이 나른해지는 춘곤증이 찾아와 졸음운전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봄철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더욱이 눈을 감은 무빙비 상태에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치사율 또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1%보다 2배 높은 4.3%로 치명적이다. 단순히 이 같은 수치만 놓고 살펴봐도 정말 한순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의 원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나른한 봄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졸음운전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숙면을 취했으나 졸음이 밀려온다면 차량 내부를 환기시켜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커피나 비타민 음료, 견, 사탕, 견과류 등을 먹으면 잠시 동안은 도움이 된다. 특히, 시속 100km로 달릴 경우 1시간 안에 운전자의 29%가 졸음을 느끼고 2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하면 75%가 졸음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고 속도로 장시간 운전 시에는 반드시 2시간 마다 휴게소 또는 졸음휴게소 등에 정차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과 '졸음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을 명심했으면 한다. 신세기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탈리아 의료진, 등에는 희망의 메시지



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성 필리포 네리 병원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한 의료진의 보호복 뒤에 그의 이름 '줄리아'와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웃고 있는 태양 그림이 그려져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